

김호기의 ‘말하자면’



통일준비위원회에 바란다

통일준비위원회가 출범했다. 반가운 일이다. 산업화·민주화와 함께 통일이 우리 사회 시대정신을 이뤄왔음을 생각할 때 정권에 대한 지지 여부를 떠나 통일로 가는 길에 대한 새로운 기대를 품게 한다. 통일이 중요한 이유는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 같은 민족이 한 나라를 이루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정치적으로, 분단으로 인해 치르는 비용이 너무 크다. 경제적으로, 북한은 새로운 성장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 70년에 가까운 남과 북의 이질화 과정을 돌아볼 때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도 빨리 통일을 이뤄야 한다.

주목할 것은 우리 사회가 놓인 동북아시아가 크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변화의 시작은 탈냉전과 G2 시대의 도래다. 세계사는 이제 미국과 중국이 세계 사회 헤게모니를 두고 본격적으로 경쟁하는 국면으로 들어섰다. 아프리카 대륙 자원을 두고 두 대국이 벌이는 경쟁은 대표적 사례다.

미국과 중국이 경쟁하는 최대의 지역은 바로 동북아다. 이 지역은 중국이 놓인 동시에 미국의 최대 우방국인 일본과 한

국이 놓인 지역이라는 점에서 그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G2 시대라는 세계사의 새로운 국면은 동북아에서 형성돼 ‘한·미·일 대 북·중·러’의 구도를 뒤엎들어 놓고 있다.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경제적으로 대중 무역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져온 반면 정치·군사적으로는 한미동맹이 여전히 결정적이다. 한미동맹의 틀을 지속시켜 갈 것인가, 새로운 균형외교로 나가야 할 것인가의 선택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 G2 시대가 전쟁이라는 극단적 결과로 나타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하지만 두 대국 간 ‘공존 속의 경쟁’은 한층 강화될 것이다. 웰스트리트와 실리컨벨리를 배경으로 하는 미국과 인구 13억이 넘는 방대한 내수시장을 배경으로 하는 중국 간의 경쟁은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될 게 분명하다.

동북아의 변동은 남북한 통일에 우리 한 조건이 될 수도 있고,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동북아의 세력관계는 통일로 가는 길에 구조적 강제를 이루지

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 구조적 강제의 성격은 달라진다. 미국이든 중국이든 자국이 이익에 되는 한반도 통일이라면 거부할 리 없기 때문이다.

공파 중심이 없듯 통일로 가기 위해선 다각적인 통일 외교를 펼쳐야 한다. 한반도를 분단으로 놓아두는 것보다 통일된 대한민국이 이웃 나라들의 국익에 도움이 되고 이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적극 설득해야 한다.

여기에 더하여 남북관계의 개선 또한 중요하다. 대외관계는 어디까지나 외적 조건인 뿐이며, 통일의 주체는 우리나라와 북한일 수밖에 없다. 문제의 핵심은 그 방식이다. 북한은 박근혜 정부의 ‘드레스덴 구상’을 흡수통일을 기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해 왔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통일로 가기 위해선 남과 북이 평화공존을 이뤄야 하고 그 방식이 평화통일이여야 한다는 점이다. 북핵 문제 해결, 군사적 긴장 완화, 경제협력 강화, 사회·문화적 이질성 해소 등 차근차근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에 충실한

것이 통일로 가는 길을 앞당길 것이다.

통일준비위에 바라는 점이 바로 이것이다. 일각에선 통일준비위가 집행력을 갖기 어려운 조직적 한계를 지적한다. 통일준비위는 청와대가 밝혔듯이 통일 준비를 위한 민관협의 및 연구라는 본래의 목적에 주력해야 한다.

통일은 정권적 과제가 아니라 국가적 과제다. 말하자면, 정권의 이해得失을 떠나 민족의 미래라는 시각에서 평화를 수단과 목적으로 동시에 삼는, 국민 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통일의 방법과 내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일구려는 데 통일준비위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국제관계는 일종의 체스판이다. 이 체스판은 끝없는 이합집산과 합종연횡 속에 그 미래를 열어두고 있다.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한국 방문과 일본 집단지위권 행사에 대한 미국의 지지는 체스판의 역동성과 복잡성을 증거한다. 격변하는 동북아 구도 속에서 새로운 통일의 길을 적극 모색해 갈 수 있기를 소망한다.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종교칼럼



김연준 천주교 광주대교구 소속도봉당 주임신부

국립소록도 병원에 자원봉사자가 오면 먼저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갖습니다. 그 때 봉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가르치는데 그 중의 한 내용입니다. 실제 있었던 사건이라고 합니다.

병원에 입원에 게신 한 할아버지께서 봉사자를 불렀습니다. 돈을 주면서 고흥 녹동에 나가서 장미를 사달라고 했답니다. 그 봉사자는 할아버지에 대한 정성으로 바로 녹동까지 나가서 가장 아름다운

소통합시다

장미 한 다발을 사서 할아버지에게 드렸습니다. 그때 할아버지는 정색을 하시며 이게 뭐냐고 하는 것입니다. 봉사자는 당황하면서 장미를 부탁해서 사 왔다고 했지만 이미 할아버지 안색은 굳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부탁한 것은 담배 장미였던 것입니다.

병원에서는 자원봉사자를 교육할 때 이 사례를 아주 중요하게 다룹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봉사는 그 사람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봉사한다는 것은,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대로 하는 것입니다.

소록도 성당에서는 중남부지구(보성, 벌교, 장흥, 대덕, 고흥, 녹동, 도화성당)를 중심으로 성당 가족이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소록도 환우 가정집을 방문해 봉사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습니 다. 그리고 벌써 4개월을 맞이하고 있습

니다. 현재 보성성당에서 10가정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후 2~4시 소록도 수녀님의 안내로 2시간 동안 환우 가정에서 방 청소도 하고, 말벗도 되어 주고, 어떤 경우에는 목욕봉사도 합니다. 이번 달에는 한 부부가 초등학교 자녀 2명과 함께 찾아와 정신 연령이 보통보다 는 좀 떨어지는, 혼자 사는 아저씨 집에 가서 방 청소를 하고 목욕도 시켜드렸습니다.

사실 그 환우 형제는 몸이 좀 지저분한 상태였습니다. 목욕을 간절하게 원하고 있었지만 말을 잘 못해서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 다. 이분을 담당하는 가족은 그분이 원하는 것에 먼저 귀를 기울였고, 그분이 원하는 목욕을 먼저 해드렸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얼마나 열심히 하던지 지켜보는 체계도 큰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봉사도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주어

야 진짜 봉사입니다. 그렇게 두 시간이 지나고 몸이 깨끗해 진 그 아저씨는 자신이 가장 아끼던 하늘에 날리는 연 두 개를 가족들에게 선물했습니다. 그 환우 형제가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선물한다는 것은 기억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소록도 봉당신부인 제과 아무리 부탁을 해도 저에게는 국물도 없었습니다. 진정한 봉사 안에서 얻어는 더디었지만 드디어 소통이 시작된 것입니다.

현 정부에서는 소통에 대해 참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소통의 핵심은,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차리고 약한 사람을 먼저 감동시킬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헤아리는 봉사 그것이 진정한 권위입니다. 소통은 그래서 늘 감격스럽습니다. 저도 이제 본격적으로 연을 얻어 보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기고



신현숙 전라남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지난 1월 국내 지상과 방송에서 방영된 다큐 프로그램 ‘의학, 제3의 물결’에서는 암과 불치병 치료의 새로운 대안으로 통합의학이 제시되고 있다. 방송에서는 현대 양의학으로는 치료불가 통보를 받은 암환자와, 종양이 커질 때마다 평생 수술을 반복해야하는 환자가 양의학과 한의학을 동시에 이용해 치료하는 통합치료 병원을 찾는 모습이 방영됐다.

이들 환자가 꾸준히 치료를 받아 면역력을 키우고 삶의 질도 높이면서 일상생활이 가능한 상태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 2012년 케이블방송에서 방영된 드라마 ‘제3병원’과 예능 프로그램 ‘한양스캔들’은 양의사와 한의사가 같은 질환에 대해 각자의 전문분야에서 치료법을 제시하며 자존심 대결을 하는 구상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환자를 위해 양

100일 앞으로 다가온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

방과 한방이 동시에 치료법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통합의학의 개념을 보여주고 있다.

통합의학은 노령화와 사회·문화적 환경의 급변으로 인해 기존의 서양 의학만으로는 원리가 어려운 노인성, 만성 질환 등이 급증하는데 따른 대안으로 등장했다. 기존의 의사중심 의료 체계를 벗어나, 면역력 증가를 통한 사전 예방과 환자의 정신적, 사회적, 영적 치유까지도 함께 고려하는 인간중심의 의료서비스다.

장흥에서는 통합의학을 주제로 2010년부터 매년 박람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양방과 한방, 보완대체의료서비스를 한 자리에서 모두 체험할 수 있어 매년 30만여 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하고 그만큼 다양한 화제거리도 만들어 왔다. 특히 한해 검사를 통해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질병 여부도 판별할 수 있는 ‘홍제 건강검진 프로그램’은 박람회 기간 동안 하루 평균 500명 이상이 체험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 실제 각종 암으로 의심되는 사람 20명을 발견해 정밀검사를 받도록 권장하는 성과를 거두는 등 많은 이슈를 불러 모았다. 또한, 20년 동안 팔이 불편해 어깨 위로 들어 올리지도 못하던 한 관람객이 박람회장에서 재활치료를 받고나서 팔의 움직임이 편해지고 어깨 위로도 움

질일 수 있게 되는 정말 드라마 같은 상황이 펼쳐지기도 했다.

하지만 통합의학박람회가 장흥에서 개최되기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특히 통합의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양방, 한방으로 분리된 국가 의료체제와 전무하다시피한 법제도적 기반으로 인해 아직까지도 발전이 더디고 사회 전반적인 인식도 낮은 상황이다.

전남도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가보다 앞서 미래 의료서비스의 지향점이자 신성장 동력으로서 통합의학의 중요성을 인식했다. 2007년 통합의학 국제 심포지엄, 2008년 보완통합의학 pre박람회 개최하면서 철저한 사전 준비단계를 거쳐 2010년부터는 세계 최초로 통합의학박람회를 개최했고 지난해까지 4회 연속 개최하는 동안 총 관람객 151만여 명이 다녀가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는 5회째를 맞는 ‘2014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 개막일이 10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박람회는 10월 22일부터 28일까지 7일간 장흥군 천관산 일원에서 ‘건강을 위한 아름다운 동행! 통합의학’이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된다. 올해는 통합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20여개 의료기관과 60여개 협회·단체 등 모두 200

여 기관 및 개인이 참가한다.

박람회장은 통합의학에 대한 정보를 얻고 진료도 체험해 볼 수 있는 통합의학관과 협회·단체 및 도내 22개 보건소가 중심이 되어 다양한 건강관련 정보와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건강체험관, 대나무·편백·소금동굴이 어우러지는 자연치유관 그리고 약선요리관과 학술관, 의료산업관, 건강음식관 등 7개 주제관으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건강콘서트, 힐링댄스 페스티벌, 음금치지 경연대회, 난타 힐링 공연, 승마체험 등 건강행사와 국화축제장, 특산물 전시판매장 등 다양한 즐길 거리가 제공된다.

전남도는 앞으로 남은 100일 동안 지성을 드리는 마음으로 철저히 행사를 준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어느 해 보다 성공적인 박람회로 자리매김하고, 나아가 ‘2016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로 발돋움하는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통합 의학산업 육성은 민선 6기 도지사 공약사항이다. 앞으로 전남도에서는 장흥군 안양면 일원에 건립을 추진중인 통합의학센터를 조속히 완공해 국제박람회와 연계하고, 연관 산업도 집중 육성함으로써 전남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통합의학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교통사고 보상 더 받으려 병원 옮겨서야

직장 동료가 얼마전 전지 결핵속에 다녀오던중 교통사고를 당했다. 지방국도에서 다른 차가 추돌을 했다는 것이다. 허리를 좀 다쳐 병원에 입원했길래 병문안을 갔더니 주변에는 다른 교통사고 환자들도 있었는데 병원에서 좀 지켜주니 믿는 말을 들었다.

다른 환자중 한명이 한방치료를 하겠

다며 한의원으로 옮겨 갔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이유가 보상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한의원이든 일반 병원이든 입원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 하지만 한방병원은 일반 병원보다 병원료가 비싸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 입원에 있을수록 가해자측 비용이

훨씬 늘어난다. 그런 이유 때문에 가해자측 보험사에서는 하루라도 더 지체할 경우 병원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빨리 합의를 보라고 하고, 그럴 경우 피해자측에서는 유리한 고지지에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나는 한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교통사고지만 주위의 그런 세태가 참 쓸쓸한 일이다. 이런 악랄한 술수가 만연할 경우 성실하게 자동차 보험료 낸 사람

들, 자동차 사고가 본인아니게 나서 정직하게 입의원 하고 치료비를 물어주거나 받은 사람들 모두에게 피해를 전가시키는 것이다.

좋은 정당한 치료를 위해 한방병원에 가는거야 누구도 뭐라 하지 않을 것이지만, 나쁜 마음을 먹고 그러다면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이럴 때 ‘양심’이라는 말이 떠오르고, 보험료가 비싸지는 이유도 이런데 기인하는건 아닌가 싶다.

▲김기영·광주시 북구 운임동

社說

가슴 쏘아내린 광주 도심 헬기 추락사고

서울 삼성동 아이파크 아파트 헬기 충돌사고 충격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또다시 광주 도심에서 헬기 참사가 발생했다. 17일 오전 8시53분께 광주시 광산구 장덕동 부영아파트 옆 인도에 강원도 소방본부 소속 헬기가 추락하면서 조종사와 소방관 등 탑승자 5명이 숨지고, 버스 승강장에 있던 여고생 1명이 파편에 맞아 2도가량의 화상을 입었다.

신흥택지구인 이 일대(수원지구)는 학교, 상가, 원룸 등이 밀집한 곳이었 한 사회적 합의를 일구려는 데 통일준비위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국제관계는 일종의 체스판이다. 이 체스판은 끝없는 이합집산과 합종연횡 속에 그 미래를 열어두고 있다.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한국 방문과 일본 집단지위권 행사에 대한 미국의 지지는 체스판의 역동성과 복잡성을 증거한다. 격변하는 동북아 구도 속에서 새로운 통일의 길을 적극 모색해 갈 수 있기를 소망한다.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기를 몰아 피해를 최소화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관계 당국은 추락한 헬기가 2001년에 제작돼 노후 기종은 아닌 만큼 일단 기상악화 내지 기체 이상 등으로 인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추락하기 전부터 불이 붙어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기체에 이상이 생겨 추락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사고 원인은 향후 조사 결과 밝혀지겠지만 문제는 헬기 사고가 잦고, 도심에서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해 11월 서울 삼성동 아이파크 아파트의 민간 헬기 충돌 이후 이제 도심 헬기 사고는 ‘발 등에 불’이 된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헬기가 도시를 지날 때 우회 운항하거나 도시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 통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기상악화 시 무리한 운항 자체하고, 기체 점검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도심 헬기는 날아다니는 폭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軍공항 이전 광주·전남 상생할 수 있도록

광주 지역 최대 현안인 군(軍) 공항 이전 문제가 다시 핫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광주시가 오는 23~24일 이와 관련된 주민 의견을 듣기로 했기 때문이다. 시는 주민 의견을 모은 뒤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10월까지의 국방부에 이전 건의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군 공항 이전은 광주공항 국내선 존치, 무안공항 활성화와 연계돼 있다. 민선 6기 시작과 함께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황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기로 한 만큼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또한 시민 여론의 향배에 따라 해법의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어 주목된다.

군 공항 이전 필요성은 전직부터 제기돼 왔다. 환경부의 ‘2013년 항공기 소음 측정량 운영 결과’ 광주공항은 평균 소음 87데셀로 전국에서 가장 시끄러운 곳으로 나타났다. 공군 훈련기 T-2도 이제 본격적으로 연을 얻어 보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광주공항 국내선 운영문제도 심각하다. 내년 초 KTX 호남선 완전 개통으로 서울~광주가 1시간30분 생활권이 되면 공항 이용객이 급감할 수밖에 없다. 일부에서는 광주시와 전남도가 군 비행장 이전에 합의하고 광주공항 국내선을 무안공항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반면 2015 유니버시아드대회,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원활히 개최하기 위해서는 광주공항의 국내선이 꼭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국내선 유지는 물론이고 광주~인천공항 노선 신설, 광주~제주 노선 확대 추진과 함께 저가 항공사 유치로 활기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입장은 상반되지만 군 공항 이전과 광주·무안공항 활성화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데에는 확실한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아무쪼록 널리 의견을 수렴해서 광주만의 목소리가 아닌 ‘상생’의 단초를 찾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無 等 鼓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공항은 해외여행을 떠나는 이들로 북적거린다. 지난해 우리나라 해외 여행객은 약 1516만 명에 달했다. 미국의 정취를 즐기기 위해 떠나는 여행은 사람을 들뜨게 한다. 한때, 좁은 비행기에서 10시간 이상 버티야하는 장거리 여행은 여간 고역이 아니다.

세계 여객기 시장은 미국 보잉과 유럽 항공회사들의 연합체인 에어버스가 양분하고 있다. 1958년 보잉 707이 출시되면서 제트 여객기 시대가 열렸고, 이후 두 회사는 치열한 다툼을 벌이고 있다.

최근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항공사들은 가격을 낮추는 대신 좌석 크기를 줄이기 시작했다. 지난 1990년 대까지만 해도 계속 커졌던 항공기 좌석은 2000년대 들어 1960년대 수준으로까지 줄어들었다.

에어프랑스는 최근 보잉 777 이코노미석을 한 열대 9석에서 10석으로 늘렸다. 좌석 폭은 기존 47cm에서 43cm로 줄었다. 에어버스는 기존 180석과 220석용 189석과 240석으로 늘린 개량형 A320 등을 내놓았다.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고수지책이지만 이용객들은 곤욕

스럽다.

에어버스가 최근 특허 출원한 좌석은 점입기경이다. 자전거 안장처럼 생긴 좌석에는 팔걸이와 안전벨트만 있을 뿐 등받이는 물론 개인용 탁자도 없다. 위싱턴 포스트는 “중세 고문 도구처럼 보인다”고 혹평했다.

항공사들의 횡포에 맞서 소비자들은 더욱 간간해지고 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승객들이 여객기의 품질을 평가하는 사이트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한다.

‘시트구루 (Seat-Guru)’, ‘에어라인 레이팅스(Airline Ratings)’, ‘시트마에스트로(Seat-Maestro)’ 등이 대표적이다. 국내 여행 사이트와 블로그 등에도 ‘시트구루’ 등의 이용법을 담은 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다.

사이트에는 “똑같은 보잉 757이지만 US에어의 2C 좌석과 아메리칸에어의 2C 좌석은 확실히 다르다”는 구체적인 평가가 가득하다.

퍼스트 클래스나 비즈니스석을 이용하기 어려운 보통 사람들은 현명한 소비자자가 되는 수밖에 없다.

※/김민 문화부장 mekim@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창·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鎭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편집부 2200-649 정치부 2200-642 (대표 FAX 222-4918) 사회부 2200-663 (대표 FAX 222-4267)	경 제 부 2200-632 문화생활부 2200-661 여론대처부 2200-696 체 육 부 2200-697 사 진 부 2200-693 조 사 부 2200-571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	--	---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